# ‘현행’ 천수경의 구조와 의미

이성운(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차 례〉

Ⅰ. 서언
Ⅱ. 儀禮에서 천수주의 役割
Ⅲ. ‘현행’ 천수경의 成立의 見解
Ⅳ. ‘현행’ 천수경의 分科
Ⅴ. ‘현행’ 천수경의 深層構造
Ⅵ. 결어

**〈국문요약〉**

이 글은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현행’ 천수경의 사상, 분과, 성립 등을 바탕으로 ‘현행’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분석하여 ‘현행’ 천수경의 위상과 의미를 밝혀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의례에서 ‘천수주(다라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은 ‘현행’ 천수경의 성립 추이를 개관하고, ‘현행’ 천수경 분과를 비교 검토하고, ‘현행’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탐색하여, ‘현행’ 천수경의 이해와 인식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천수경 연구서와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소재 의례들을 가능한 한 통시적 안목에서 분석할 것이다.

의례에 보이는 천수주는 삼매와 염불의궤를 위한 사전의궤로, 또는 도량을 깨끗이 하는 엄정용, 악업이나 악취를 없애는 파악다라니 등으로 쓰였는데, 저녁 송주로 자리하면서 ‘현행’ 천수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현행’ 천수경의 완결성과 사전의궤로 분과하는 제 견해를 바탕으로 논자는 ‘현행’ 천수경에는 발원성취의궤, 엄정도량 의궤, 참회서원 의궤, 준제행법 의궤와 전후 연결 의궤의 심층구조를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현행’ 천수경은 개인적 발원의궤에서 불사성취의궤로 확장되었으며, 그 과정에 사방찬과 도량찬의 비현실적 의궤까지 편입되기도 하고, 연결 과정에

서 다음 의궤의 서두가 사전의궤의 귀결로 인식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로 '현행' 천수경은 발원과 참회의식의 전반부와 관력을 증진하기 위한 준제지송의식의 후반부의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전 독송과 불사작단 등을 위한 보편적으로 염송하는 사전 의궤임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천수경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립돼 왔다는 것 자체가 완결성을 갖기보다는 비고정적이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천수주가 불교의례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듯이 천수경이 그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교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천수경 각 구의 바른 번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의궤를 봉행하기 위한 사전 의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불교 의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천수경, 발원, 삼매, 엄정, 준제행법, 참회, 의궤, 불교의례

## Ⅰ. 서 언

한국불교에서 천수경의 비중의 적지 않은데,[1]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천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비주'의 다른 이름[異名] 속에서 다라니가 불자 대중에게 친근해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범달마 역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이하 「천수다라니경」이라 함)에는 광대원만, 무애대비, 救苦, 延壽, 滅惡趣, 破惡業障, 滿願, 隨心自在, 速超上地의 아홉 가지

1) 현재 널리 쓰이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통일법요집』(서울: 조계종출판사, 1998), 월운스님의 『삼화행도집』(서울: 보련각, 1986) 등 잘 알려진 의식집(법요집) 10여 본을 조사해 보았으나 천수경이 나타나지 않는 의식집은 없었다. 다만 광덕스님의 『불광법회요전』(서울: 불광출판부, 1983년 초판, 34면)은 '천수경'이라는 명칭 대신 '천수다라니(대비주)의범'을 택하고 있다.

異名이 등장한다.[2] 이를 우리는 현재 신묘장구다라니로 부르고 ‘대비주’ ‘천수(주)’라고 약칭한다.

천광왕정주여래에게서 이 다라니를 받아 우리들에게 전해 준 관세음보살은 이 다라니를 한 번 듣고 초지에서 8지로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한다. 흔히 瑜伽唯識에서는 보살의 수행계위인 십지의 초지에서 8지까지 오르려면 2아승지겁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 경전에는 이 다라니를 한 번 듣고 초지에서 8지로 뛰어넘었다고 설하고 있다. 또 만원, 구고, 연수 등에서 보듯이 일체 출·재가를 막론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다라니로 그 공능이 다양하여 개인 발원이나 삼매를 닦는 도구로 머물지 않고 도량의 가지, 결계, 엄정의 성취에 쓰이는가 하면 악취를 멸하는 등 제멸의 의례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여느 경전이나 다라니보다도 자주 접촉하게 되어 친근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또 일자, 육자, 구자진언처럼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능엄주처럼 길지도 않은 80여 구 400여 음절로 암송하기에 적절한 분량과 조석송주 중 석례대비주로 빈번히 독송된 데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천수주를 중심으로 전후 게송이 덧붙여진 ‘현행’ 천수경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호성은 『천수경이야기』, 『천수경과 관음신앙』,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등의 저술과 논문에서 천수경의 구조와 사상에 대해 다양하게 천착하였으며,[3] 또 정각은 천수경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관음신앙과 17세기 이래 간행된 주요 의례 문헌 12종을 공관하며 천수경 성립을 연구한 『천수경연구』[4]라는 업적을 이룩하였

2)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大正藏』20, 110a).

3) 김호성은 『천수경 이야기』(서울: 민족사, 1993) → 『천수경의 비밀』(서울: 민족사, 2005)로 개편, 『천수경과 관음신앙』(서울: 동국대출판부, 2003)을 거쳐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민족사, 2006)에서 천수경 연구가 일차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4) 정각, 『천수경연구』 재판(서울: 운주사, 1997).

다. 허일범은 경궤 중 진언·다라니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으며[5], 심상현은 천수경을 상주권공과 차례 비교를 통해 천수경이 준비의식임을 밝히고 있다.[6] 위 연구 성과만으로도 천수경의 세부적 연구는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수경은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먼저 천수경의 명명이다. 김호성은 '독송 천수경'이라 하여 불교를 수행하는 이들의 신행에 맞추어져 있는 데 비해, 정각은 '현행 천수경'이라 하여 통시적 입장에서 변형태로서의 천수경에 주목하고 있고, 심상현은 '의식용 천수경'이라 하여 의례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7]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천수경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석문의범』(1935) 이전 간행 자료에서 보이는 '천수경'과 1960년대 이후 간행된 불교의례집에 등장하는 '천수경'의 동이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전 간행집에서 보이는 '천수' 혹은 '대비주'는 천수주를 의미하고 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불교에서 애송되는 '천수경'과는 같지 않다. '현행' 천수경은 원본 천수경과도 '천수주'와도 다른 특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제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현행' 천수경의 분과와 성립, '현행'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분석하여 '현행' 천수경의 구조와 의미를 밝혀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

5) 허일범, 「한국의 진언·다라니 신앙 연구」, 『회당학보』제6집(서울: 도서출판 해인행, 2001), 53-79면.

6)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Ⅴ(서울: 한국불교출판부, 2001), 249-264면.

7) 정각은 '현행 천수경'이라고 하여 나무상주시방불·법·승 다음에 놓인 정삼업진언 등 4진언을 '또다른 의궤로의 연결점'이라고 칭하면서 천수경의 범위를 다른 연구자들보다 넓혀 놓았다. 하지만 심상현은 '의식용천수경'이라는 명명처럼 천수경의 구성을 가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앞의 책, 262면) 현행 주요의식의 전범이 돼가는 대한불교 조계종 간행 『통일법요집』(2003)에는 '정삼업진언 등 4진언'이 실려 있지 않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천수경의 의미와 위상을 찾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가령 봉청인가 찬탄인가, 아니면 의례적 찬탄인가 엄정된 도량의 찬탄인가, 제목인가 지문인가 등이다. 따라서 이 글은 천수경의 위상과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

먼저 ‘현행’ 천수경 성립 이전, 의례에 사용되고 있는 「천수다라니경」 소출 ‘천수주(대비주)’의 역할을 살펴보고, 다음은 ‘현행’ 천수경의 성립 추이를 개관하고, ‘현행’ 천수경 분과를 비교 검토하고, ‘현행’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탐색하여, ‘현행’ 천수경의 이해와 인식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천수경 연구서와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소재 의례들을 가능한 한 통시적 안목에서 분석할 것이다.

## Ⅱ. 의례에서 천수주의 역할

한국의 불교의례 속에는 천수주가 빈번히 등장한다. 천수주가 의례 속에 나타날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 1. 삼매수행의 사전 의궤

知禮(960-1028)의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의 이해는 천수경의 바른 이해의 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례의 견해를 밝혀 보기 위해 天台(538-596)의 『법화삼매참의』와 天溪 受登(1607-1675)의 『준제삼매행법』의 차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 법화삼매참의 | 대비심주행법 | 준제행법 |
| --- | --- | --- |
| ① 嚴淨道場 | 嚴道場 | 嚴治道場 |

| | | |
|---|---|---|
| ② 淨身 | 淨三業 | 淸淨三業 |
| ③ 三業供養 | 結界 | 三業供養 |
| ④ 奉請三寶 | 修供養 | 請三寶諸天 |
| ⑤ 讚嘆三寶 | 請三寶諸天 | 讚嘆申誠 |
| ⑥ 禮佛 | 讚嘆申誠 | 作禮 |
| ⑦ 懺悔 | 作禮 | 持呪 |
| ⑧ 行道旋遶 | 發願持呪 | 修行五悔 |
| ⑨ 誦法華經 | 懺悔 | 行道旋遶 |
| ⑩ 思惟一實境界 | 修觀行 | 入三摩地 |

위 세 행법은 삼매를 닦는 수행방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천태의 「법화삼매참의」는 삼칠일간의 사유일실경계를 제시하고 있다. 천태는 삼매를 닦기 전에 선행 송경으로 법화경을 읽고 있지만 천태계열의 수행자인 수등은 持呪편에서 준제주를, 知禮는 천수주를 택하고 있다. 천수주 송주는 관력을 기르기 위한 사전 수행임이 드러난다.

여기서 준제행법이나 천수행법은 그 역할에 차이를 찾기 어렵다. 지례는 '전원(10원) 후원(6향) 12보살칭명 천수주 송주'의 행법을 제시하고 있고, 수등은 준제주 9자를 몸의 정상부터 발까지 아홉 곳에 '成一切智'부터 '定慧成矣'의 제법을 배대하고 있다.[8] 이는 송주와는 다르다.

## 2. 염불삼매의 사전 의궤

다음은 『염불보권문』(1764)을 보자. '염불작법차서'라는 소제목 아래 정구업진언 개경게 개법장진언 신묘장구다라니왈이라 하면서 천수주 염송 후 도량게 참회게 후를 마치고 장엄염불로 알려진 찬불게로 이어지는 염불작법의 순서가 제시되었다.[9]

---

8) 受登, 『准提三昧行法』(『卍續藏經』), 551c).
9) 明衍集, 『念佛普勸文』(『韓國佛敎全書』 9), 55下 以下.

『삼문직지』(1769) 역시 ‘칭명예념선후절차’라는 이름 아래 정삼업진언 내외토지진언 개경게 개법장진언 천수다라니 3편 후 엄정게 참회게·진언 후에 ‘예념절차’로 귀의삼보 귀의게 후에 극락세계의 일체삼보에 지심귀명의 배를 하고 진의게와 사무량게 후에 장엄염불을 시설하고 있다.[10] 이는 천수주의 용도가 염불삼매를 닦는 사전의궤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 3. 엄정도량 의궤

엄정은 도량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다. 도량을 결계하고 청정히 하는데 사용된 의식이다. 계를 설하는 경우 佛 在世 때는 白二羯磨로 도량을 맺고 있지만,[11] 밀교의 영향으로 가지력에 의지한 결계엄정의식이 중심이 되었다. 천수경에 등장하는 결계 엄정 의식의 원형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무애대비심대다라니』[12]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전을 근저로 발달한 수륙재문의 ‘천수주 사방찬 도량찬 참회게·진언’이 결계 엄정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륙재의 도량 결계엄정의식을 살펴보자. 백이갈마의 재창과 달리 수륙재회의 결계의 방법은 불보살의 가

10) 捌關撰, 『三門直旨』(『韓佛全』10), 144-145면.

11) 『四分律』(『大正藏』22, 819a), “도반끼리 길에서 작은 경계를 맺고 계를 설하되 두 차례 갈마를 하라”; 志磐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第一輯, 朴世敏編, 三聖庵, 1993, 以下 『韓儀叢』이라 칭함), 577-578면 사찰에서 수계를 하거나 시식을 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로 삼는다.”는 것과 같은 ‘백이갈마’법은 보이지 않고, 여래화현인 예적원만성자 등 제성중께 결계를 5차례 청하고 있지만 장소와 지역의 경계를 짓는 지문이나 대사는 찾기 어렵다.

12)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大正藏』20책, 190b), “若能如法結界依法受持, 一切成就, 其結界法者, 取刀咒二十一遍, 劃地爲界. 或取淨水咒二十一遍, 散著四方爲界, 或取白芥子咒 二十一遍, 擲著四方爲界. 或以想到處爲界. 或取淨灰咒二十一遍爲界. 或咒五色線二十一遍, 圍繞四邊爲界, 皆得.”

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관세음보살께 가지 결계를 청하고, 가지고 계신 감로수에 의지하여 '가지주수'할 것을 청하고, 마지막으로 가지주수한 가지수를 도량 내외에 쇄수하며 청정국토로 변하게 청하는 절차이다.[13] 이때 천수주를 3편을 독송한다.[14] 사방에 쇄수를 끝냈으므로 사방찬을 하고 청정해진 도량을 찬탄하는 엄정 게송으로 결계도량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한다. 결계엄정으로 '所作處'의 엄정이 이루어졌으므로 能作者의 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15] 능작자의 엄정을 위한 의식이 참회게와 진언 염송이다. 참회게를 송하고 난 다음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연비를 행한다.[16] 도량의 청정에 加持의 물(水)이 쓰였다면 능행자의 청정에는 불(火)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멸악취 의궤

천수주가 대중에게 친근하게 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또 하나는 멸악취다라니로서의 천수주의 역할이다. 시식의의 召請을 위한 破惡다라니로서 천수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수륙재의와 같은 대회가 축약된 시식의문의 소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초기의 시식의문으로 몽산이 찬한 「增修禪敎施食儀文」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간행

---

13) 西河編, 『仔夔刪補文』(『韓儀叢』 2); 龍腹寺, 『靈山大會作法節次』(『韓儀叢』 2).

14) 『법화경』「견보탑품」에서 말하는 사바를 정토로 변화시켜 불보살님들을 오시게 한 데서 연유한다. 다라니 3편을 독송하여 사바를 정토로 만드는 것을 3변정토라고 한다. 이에 대해 팔관의 「삼문직지」에 삼편 염송을 첫째 滅染緣, 둘째 遺識心限碍, 셋째 廓法界淸淨을 거론하고 있고, 백파스님은 이를 『작법귀감』에서 보완해 설명하고 있다. 정각스님은 『천수경연구』(서울: 운주사, 1996)에서 상세히 주석(주359-364)을 달고 있다.

15) 영산재 등 상단공양을 중심으로 봉행될 때는 능작자의 청정을 위한 참회의식 없이 도량찬 이후 곧바로 거불로 들어간다. 龍腹寺, 『靈山大會作法節次』(『韓儀叢』2), 133상; 금산사, 『諸般文』(『韓儀叢』 2, 1694), 480상.

16) 亘璇撰, 『作法龜鑑』(『韓儀叢』 2), 376하.

된 이 ‘시식의’는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중국 선문의 ‘몽산시식’과 약간의 동이를 보이면서도 한국불교의 특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增修禪敎施食儀文」의 소청의식은 三段請으로 一段階請은 都請의 일종으로 法身坐偈로 탄백하고; 二段階請은 召請某靈과 法界孤魂인데 請魂偈로 하고 있고; 三段階請은 地獄衆生을 청해야 하므로 面然大士의 서원으로 이룰 수 있음을 밝히는 請魂偈를 필두로 지옥을 파하고자 千手呪·破地獄·解寃結·普召請·南無大方廣佛華嚴經의 가지가 등장한다. 또 지옥중생은 인로왕보살의 증명과 안내에 의지해야 하므로 證明請과 孤魂請의 삼청을 하는 것이다. 이 의례문의 三段請은 上(地上)·下(地下) 二段請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一·二請을 一段 二請의 一請으로, 三請(별청으로 칭하고 있음)의 二段請을 二請으로 보면 前論한 중국 수륙재의 上·下壇請과 동일구조를 이룬다.[17] 지옥중생을 소청하기 위해 염송하는 천수주는 異名 멸악취다라니에 잘 부합한다고 하겠다.

## Ⅲ. ‘현행’ 천수경 성립의 견해

### 1. 그간의 성립 연구

천수주가 어떻게 현재의 ‘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었을까. 정각의 “‘현행’ 천수경 성립 개관을 위한 공관표”[18]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천수경의 本典인 다라니에다 여러 經에서 여러 頌句들을 뽑아 재편성하여 만든 것[19]이나 현 체제와 가까운 것은 『고왕관세음천수다라니경』부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미비하고 1935년

17) 졸고, 「蒙山德異의 “禪敎施食儀文”의 수용과 변형」, 『‘장례문화에 관한 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공양에 관한 비교학회, 2008.9.5), 97면.
18) 정각, 앞의 책, 121-132면.
19) 法性 편저, 『백화도량에로의 길』(서울: 경서원, 1982), 43면.

에 간행된『釋門儀範』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20]으로 보거나 제종(諸宗) 통합에 따른 각 종파 의식들의 집대성이라는 자연스러운 추이의 결과[21]라는 데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 경의 송구들을 뽑아 재편성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도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왕관세음천수다라니경』(1881)에서 현행 천수의 단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성립의 시기를 보여주는 데에 불과하다. 또 제종의 통합에 따라 종파 의식이 집대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제종통합(15세기 중엽 이전)과 천수경 형태의 성립(아무리 높이 산정해도 19세기 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또 15세기 이래 간행된 의례서에서 종파성을 찾기도 쉽지 않다.

## 2. '현행' 천수경 성립에 대한 논자의 견해

앞에서 살펴본 '의례에서 천수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천수경이 성립된 배경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천수주'를 활용하는 발원의궤가 원 의궤로 확립되었다.

발원성취를 위한 '천수주 지송의궤'는 천수주를 수없이 지송하는 의궤로 이하의 진언은 천수주와는 무관하다. 이는 천수다라니경이 성립되면서 유포되었을 것이다. 의상의「백화도량발원문」이나 지례의「천수안대비심주행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의궤는 전송의식이 표기되지 않고 있으나『五大眞言』[22]의 '四十二手眞言 神妙長句陀羅尼 隨求卽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에서 천수주가 독립되어 천수경의 원 의궤로 확립된 것을 말할 수 있다. 계청문 앞에 송주의문의 개경게 쓰인 최초의 문헌으로 소개된『염불보권문』의 '염불작법차

20) 河泰完,「현행 천수경 오기에 대한 고찰」,『東國思想』vol.19(서울: 동국대학교, 1986), 143면.
21) 정각, 앞의 책, 141면.
22) 학조,『五大眞言』(『韓儀叢』1, 1485), 137-185면.

서’(1704)[23]보다 선행 자료인 담양 용천사 『염불작법』(1575)[24]에는 보례게 · 진언 이후 예과거칠불을 하고 개경게와 개법장진언의 ‘염불작법’이 실려 있다. 적어도 17세기 말에는 전송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한다.

둘째, 천수주를 중심으로 몇몇 의궤가 결합하여 저녁송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도량엄정을 위해서는 천수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륙재와 제반문에는 관음을 청하고 쇄수게를 외우고 천수주를 지송하며 쇄수를 하고 이후 사방찬 도량찬을 하고 본 대회(재회)의 봉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천수주 사방찬 도량찬 형태의 이 의궤와 기도성취 발원의궤를 만나 1차 천수의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권공제반문』(1574)의 ‘염불작법’에서인데, 천수주와 도량찬 이후 미타경을 읽고 장엄염불로 들어가고 있다.

이후 참회게까지를 포함한 자료로는 『염불보권문』(1764)을 들 수 있다. 참회서원을 할 때는 천수주를 외우고 참회게와 참회제진언을 염송한다. 수계를 할 때는 연비를 행한다. 이후 수계의식이 설행되는데 현행의 천수경에는 그 의궤를 드러내기 어렵다.

셋째, 저녁 송주 小禮懺 이후에 도입되어 觀行力 증진을 위한 정근으로 활용되던 준제행법과 하나가 되어 큰 틀의 현행 천수경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된다.

준제주는 관법으로 준제행법 자체의 완결성이 뛰어난 의식이다. ‘옴 자례 주례 준제 스바하’의 아홉 자를 관하는 준제작법은 준제지송의 관력을 증장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독립된 의궤인데 정행편 해인사 도솔암 『일용작법』(1869)에서부터 저녁송주 소예참 후 편입되었다.

현재 천수경의 진언은 3편 염송하고 있는 것은 후대의 모습일 뿐이고, 이 「일용작법」(1869)에는 정법계진언과 호신진언 21편, 육자대명진언 108편 준제진언 500~1,000편을 지심으로 염송하라고 협주[25]하고 있다.

---

23) 정각, 앞의 책, 161면.
24) 龍泉寺, 『念佛作法』(『韓儀叢』2), 3면.

이때 여래십대발원문과 사홍서원이 회향발원의 하위본문으로 편입된다. (원이) '발원이귀명례삼보'는 원을 마치고 절하는 대사이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과할 필요가 없다.

넷째, 참회게 · 진언에, 삭제와 추가를 겪으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참제업장십이존불(『불경보감』,[26] 1965) 십악참회 · 참회게 2수(『행자수지』, 1969)'로 참회를 확장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27]

이 가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원 의궤 발원성취의궤 (발원과 천수주) - 7세기 이후; 15세기 후반
1차 원 의궤 + 결계참회의궤 - 16세기 중후기 이후
1-1 결계의궤(사방찬 도량찬) - 『권공제반문』(1574)
1-2 참회의궤(참회게 · 진언) - 『염불보권문』(1764)
2차 1차의궤 + 준제지송편람 - 19세기 중후기

---

25) 井幸編, 『日用作法』(『韓儀叢』3), 532면.

26) 金赫濟, 『消災吉祥 佛經寶鑑』(초판 1965; 3판, 서울: 明文堂, 1973) 1면, 편자의 신분 확인이 어렵고 이 책의 편집과 내용이 다분히 무속적 성향이 농후하기는 하지만 '천수경'이라는 경명을 붙이고 있고 '경문을 독송 시는 이 천수경을 반드시 세 번 선송할 것'이라는 편찬 의도로 볼 때 『석문의범』 이후 천수경이 독립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잘 밝혀 주고 있다.

27) 논평자 정각 스님은 이에 대해 『現行法會禮懺儀式』(1709)의 십악화청과 『조석지송』(1931)에 삽입된 십악화청을 지적하였다. 논자는 현행법회예참의식에 십악화청이 있으나 이 때 십악화청은 권공 이후 팔관재계 수계를 하면서 참회하는 의식이므로 '현행' 천수경과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석지송」의 경우 참회게 참회진언 이후에 시설되어 있는데, 이는 가지참회 · 사참 · 이참의 참회게 + 참회진언의 이해로 볼 때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십악화청을 참회게로 이해하고 진언으로 완결하는 참회구조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현행' 천수경의 십악화청은 20세기 중엽 이후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십악화청의 공능과 용례는 예수재문에서 볼 수 있듯이 축원화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1 참회의궤+참회제진언 -『일용작법』(1869)
2-2 준제지송편람 -『고왕관세음천수다라니경』(1881)
2-3 + 여래십대발원문 사홍서원 -『일용작법』(1869)
3차 2차 의궤의 변형 - 20세기 이후
2-1 참회의궤(참회게 · 진언) 외 제 진언 삭제[28]
3-1 + 참제업장 12존불 -『불경보감』(1965)
3-2 + 십악화청 + 참회게 二首 -『행자수지』(1969)

결국 천수주를 중심으로 천수주 이전의 발원의식은 천수주의 사전의궤이고 천수주를 포함한 발원의궤는 완벽한 천수주 정근의궤라고 할 수 있다. 이 의궤에 천수주와 엄정게를 송하는 도량엄정의궤가 ‘천수주’라는 주의 후반부에 편입되어 천수주의 1차 의궤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어 참회발원의궤가 도량찬 이후에 자리하여 천수경의 1차 의궤인 전반부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 관력 증진의 준제지송편람이『일용작법』(1869) 이래 소예참 후의 저녁 송주에 편입되면서, 소예참 이전의 저녁 송주인 천수주 행법과 조우할 단초가 마련되었다.[29] 곧 이어 유사하지만 상이한 두 정근의궤는 소예참의 독립을 기화로 결합의 길을 걷게 되는데『고왕천수다라니경』(1881)에서이다. 천수경의 2차 의궤가 천수경의 후반부로 성립

28) 석문의범에는 불가일용작법 이래 참회진언 뒤편의 제 진언이 정토업으로 장엄염불 뒤편에 편제되어 있다.

29) ‘현행’ 천수경 소재 준제행법이『三門直旨』(『韓佛全』10, 153면) 소재 준제행법과 동일한 의궤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팔관의 삼문직지에 나오는 준제행법은 염불문의 부록과 같은 성격으로 자삼귀의 후 ‘준뎨대명다라니’라고 하여 ‘나무 사다남 삼먁 삼못다 구치남’의 귀경사와 ‘다냐만’ 그리고 말구 이후의 대륜일자주 ‘부림’도 나오지 않고 있고, 대수구대명왕다라니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현행’ 천수경 소재 준제행법과는 거리가 있다. ‘현행’ 천수경 소재 준제행법은 도진의『顯密圓通成佛心要集』소재 의궤차례를 보이고 있으므로『삼문직지』소재 준뎨대명다라니 행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천수주와 결계참회의궤의 1차 의궤와 준제지송의 2차 의궤는 천수주(경)라는 의미로 정초되면서 20세기 중후반에 참제업장십이존불과 십악참회·참회게 2수가 참회편으로 편입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Ⅳ. '현행' 천수경의 분과

앞에서 천수경의 성립을 개관해 보았다. 그렇다면 천수경의 심층 구조의 탐색에 앞서 천수경의 구조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와 특징을 살펴보자. 천수경은 잘 알려진 경전의 분석법으로 쓰이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삼분법과는 그 형식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그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천수경의 과목을 분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래 연구자들은 특이한 분석법을 활용하여 천수경을 분과하고 있다. 천수경의 분과 예를 통해 천수경의 이해와 그 분과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논자의 과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 1. 천수경의 분과 예

#### 1) 김호성의 10문 3분 5단

김호성은 천수경을 10문으로 1차 분석하고, 삼분 오단으로 분목하고 있다. 먼저 십문을 보자. 奉請壇으로 ① 開經 ② 啓請 ③ 別願 ④ 別歸依 혹은 召請 ⑤ 陀羅尼, 修法壇으로 ⑥ 讚歎 ⑦ 懺悔 ⑧ 准提呪, 廻向壇으로 ⑨ 總願 ⑩ 總歸依를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서분 ① 開經; 정종분 ② 啓請 ③ 別願 ④ 別歸依 혹은 召請 ⑤ 陀羅尼 ⑥ 讚歎 ⑦ 懺悔 ⑧ 准提呪; 유통분 ⑨ 總願 ⑩ 總歸依로 삼분하고, 정종분을 대비주(②~

⑦)와 준제주(⑧)로 나누어, 허일범과 같이 삼단에 배대하고 있다.[30]

위 분과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에 배대하고 이를 다시 ‘법화삼매참회’에서와 같이 10문으로 분과하고 있다. 천수경의 완결성과 신행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한 분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천수경의 성립이나 여타 의궤에서 활용된 천수주의 이해보다는 ‘현행’ 천수경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허일범의 삼단설

허일범은 ① 봉청단(정구업진언~다라니) ② 수법단(사방찬~준제발원) ③ 회향단(여래십대발원문~삼보귀명)으로 분단하고 있다. 허일범은 종자관 수행의 밀교적 입장에서 천수경을 분석하여 천수주를 봉청단에 배대하여 준제주에 천수경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는 종파적 이해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으나 천수주와 준제주가 별도의 행법으로 발달하였고, 만일 그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준제행법 역시 준제찬에서 시작하는 행법이므로 수법단을 다시 사전 결계와 준제주 정근 염송, 이후 발원의 하위 분과를 해야 할 것이므로 천수주 중심의 천수경에는 적합한 분과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3) 정각의 8단락

정각은 ① 서두(정구업진언~개법장진언) ② 경제목 ③ 천수경의 경전내용(계수문에서 다라니까지) ④ 결계 및 청신(사방찬 · 도량찬) ⑤ 참회문 ⑥ 제진언독송(준제찬 및 준제 후송) ⑦ 발원 및 귀의(여래십대발원문 · 발사홍서원 · 귀의) ⑧ 또다른 의궤로의 연결점(정삼업진언~정법계진언)으로 천수경의 구조를 분과하고 있다.[31]

---

30) 김호성, 「‘原本’『千手經』과 ‘讀誦用’『千手經』의 對比」, 『천수경의 새로운 연구』(서울: 민족사, 2006), 69-74면.

31) 정각, 앞의 책, 149면.

이 분과의 특징은 천수경의 핵심 다라니인 천수주 '④ 결계 및 청신'과 '⑧ 또다른 의궤로의 연결점'으로 분과 등을 통해 볼 때 천수경 독송이 사전의궤임을 보여 주고 있는 분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현행' 천수경이라는 표현 또한 천수경의 성립과 변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현행'의 성격이나 또 다른 의궤로 연결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그 성격을 천수경에 방점이 주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4) 심상현의 제5의식 중 전 제4의식

의식용 천수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심상현의 과목은 상주권공이라는 완결의식의 축약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1결계의식(정구업진언~도량찬) 제2설법의식(참회게 · 참회진언) 제3준제의식(준제찬~준제발원) 제4권청의식의 '작단의식'(정삼업진언~정법계진언)으로 분과하고 있다.[32]

천수경이 의식용이라고 하는 이해는 탁견이지만 이 분과에서 보듯이 천수경 독송 가운데 설법을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고, 앞의 정각의 『천수경연구』에서 공관할 수 있듯이[33] 천수주에 제 게송이 덧붙여진 '현행' 천수경은 '상주권공'과 같은 축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누차적이고 적층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논자의 천수경 분과

위에서 4인의 천수경 분과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각 분과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호성과 정각은 천수경 자체를 진행태나 완결태로 보고 분과에 충실하고 있으며, 허일범은 밀교 수행자의 입장에서 천수경을 준제주 중심으로 분과하고 있고, 심상현은 천수경을 상주권공

32) 심상현, 앞의 책, 253면.
33) 정각, 앞의 책, 121-132면의 공관표는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의식의 축약형이라는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심상현을 제외한 세 과문 모두 현재 알려진 천수경을 완전한 하나의 경(혹은 의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계청(혹은 봉청)을 설정하게 되고, 허일범은 천수경의 핵심을 준제주로 이해하여 천수주 송주를 봉청단으로 분과하고 있다.

또 심상현은 현행 천수경을 완결된 의식인 상주권공의 축약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천수경이 누차적으로 성립되었든 축약되었든지 간에 ‘천수경 이해’에 문제는 없을까. 가령, 천수경의 핵심인 천수다라니를 독송하고 나서 불보살을 봉청한다면 이미 천수다라니 독송은 수법이 아니라 사전적(事前的)이 아닌가. 또 별귀의는 무엇이고 총귀의는 무엇일까.

논자는 천수경은 천수주지송의궤와 준제주지송의궤로 구성되었다는 전제 아래와 같이 하위분류하고자 한다.

1 천수지송의궤
① 발원성취의궤
㉠ 봉청(정구업진언~안위제신진언)
㉡ 계청(개경게~다라니계청)
㉢ 계수찬탄(계수관음대비주~소원종심실원만)
㉣ 십원육향(나무대비관세음~자득대지혜)
㉤ 당구가피(12보살 및 본사 칭명)
㉥ 천수주
② 엄정도량(사방찬 도량찬 참회게[34])
③ 참회서원(참회게~참회진언)

34) 참회게는 도량 엄정과 더불어 봉행자의 엄정을 위한 참회게와 참회서원의 참회게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본다. 월운은 사방찬 도량찬 참회게를 ‘엄정삼게’라 이름하고 있다. 월운, 『日用儀式隨聞記』(中央僧伽大出版局, 1991), 17면.

2 준제지송의궤
④ 준제지송의궤
㉠ 거불(준제공덕취~나무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
㉡ 정삼업(정법계진언~육자진언)
㉢ 준제지송(준제진언~대륜일자주)
㉣ 준제후원(아금지송대준제~원공중생성불도)
3 회향발원(여래십대발원문, 사홍서원, 귀명례삼보)[35]
※다음 의궤의 거불(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36]

이와 같은 분과를 바탕으로 천수주(경)에 내재한 실제 활용 의궤를 중심으로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분석하려고 한다.

## Ⅴ. '현행' 천수경의 심층구조

사명 지례의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이하 『천수행법』이라 칭함)[37]의 '발원지주' 편에 천수발원과 주가 편입되면서 천수주가 의례에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천수경과 이 『천수행법』의 독송규범을 비교하거나[38] 「천수행법」의 삼매참법의 10단계(① 嚴道場 ② 淨三業 ③ 結界 ④ 修供養 ⑤ 請三寶諸天 ⑥ 讚嘆伸聖 ⑦ 作禮 ⑧ 發願持呪 ⑨ 懺悔 ⑩ 修觀行)에서 천수경의 대비주 송주의 목적으로 결계로 이해하

35) 회향발원은 송주의궤와 같이 모든 의궤에 공통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로는 무외시의 가지 이후 귀의삼보 이후 참회게 사홍서원 자성사홍서원이 등장하고 있다. 『禪門日頌』(上海佛學書局), 76면; 삼귀의계 수계오계 수향이후 발사홍서원 원성취진언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조, 『眞言勸供』(『韓儀叢』1), 483-489면.
36) 다음 의궤이므로 이 글에서는 깊이 논의하지 않겠다.
37) 四明知禮, 『千手眼大悲心咒行法』(『大正藏』46)
38) 정각, 앞의 책, 118-119면.

는[39] 데는 무리가 있다. 이 행법에 천수경의 발원과 대비주가 들어 있다고 해서 현행 한국불교의 천수경과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중심으로 ‘현행’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몇몇 의궤를 살펴보자.

### 1. 발원성취 의궤

천수의 출처인『천수다라니경』에는 다라니 지송의 공덕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송주법이 출현한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송주행법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五大眞言」을 들 수 있다. 이 의례집은 정각의 지적처럼 불공 역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아 천수경 독송의례의 발전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40] 천수주 독송발원 의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천수다라니경」의 천수 송주행법에서 볼 때는, 천수주는 다른 의식을 봉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원기도 그 자체이다. 신묘장구다라니 1일삼천독기도, 100만독 기도를 봉행하는 것을 쉽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천수다라니경』의 7일7야 동안 몸과 마음으로 정진[41]하라는 구절과도 잘 부합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정구업진언 등의 전송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점도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 이전의 독송의식용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사『금강경』이나『금강경언해』에는 ‘금강경계청 정구업진언 안토지진언 보공양진언 청8금강4보살 발원문 운하범 개경게’[42]의 전송의식이 그대로 실려 있다. 금강경 언해본의 ‘안토지진언’이 현행의 ‘안위제신진언’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三門直指』에서 ‘내외안토진언’이라 하여

39) 심상현, 앞의 책, 251면.
40) 정각, 앞의 책, 120면, 주) 212.
41) 가범달마 역,『천수다라니경』(『大正藏』20, 109c).
42)『梁朝傅大士頌金剛經』(『大正藏』85, 1a);『金剛經諺解』(홍문각 영인본, 1664년 초판)

현행의 진언으로 정착되었다.[43]

현행 천수경에서 기도 발원편을 구분하자면 정구업진언 안위제신진언 개경게 개법장진언 계청 계수 수지찬탄 10원 6향의 발원과 가피를 구하는 12보살까지를 전송으로 볼 수 있고, 신묘장구다라니를 수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대진언』은 불공 역의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기도발원을 위한 신묘장구다라니 등 주요 진언 송주행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의식에는 회향의식을 찾을 수 없다. 송주 이후 회향 발원이 없다고 하여 현행 천수경 말미의 여래십대발원문과 사홍서원과 '삼보귀명'[44]을 회향으로 무리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회향게로 활용되는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45]를 어렵지 않게 원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2. 엄정도량 의궤

'현행' 천수경에 엄정도량의궤는 '천수주 사방찬 도량찬 참회게 · 진언'만이 남아 있다. 수륙재문에 흔하게 등장하는 관음봉청[46] 등 천수주 이전의 봉청의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라니를 청하는 '다라니계청'을

43) 捌關撰, 『三門直指』(『韓佛全』10, 145c).

44) '현행' 천수경에서 '원이발원이귀명례삼보'를 '귀명삼보'(나무상주시방법)의 제목으로 이해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왜냐하면 '발원이귀명례삼보', '참회이귀명례삼보' 등은 발원이나 참회를 마치고 일 배의 예를 올리는 지문 겸 대사이기 때문이다. 예: 『천수안대비심주행법』(『大正藏』46, 977a); 『日用作法』(『韓儀叢』3), 540면.

45) '염불'의 회향게에는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가 쓰이고 있다. 묘향산 용문사본 『염불보권문』(『念佛寶勸文의 國語學的 硏究』(서울: 동악어문학회, 1996), 31-32면.

46) 이때의 봉청은 불공 설계 등 본 행사의 작단을 위한 사전 행사로 관음보살의 감로수를 활용하여 결계된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청하는 의식이다.

봉청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계청[47] 이후에 계수문이 등장하여 봉청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천수경의 계수문은 봉청 이후 예배 찬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천수경의 참회게 이후 예참과 2수의 참회게 이후에 참회진언이 시설되었다는 것이다.

『석문의범』(1935)에도 존재하지 않던 예참과 십악화청이 어떻게 『行者受持』(1969)에 출현하였을까. 『行者受持』 이전 『消災吉祥 佛經寶鑑』(1965)에는 예참12불이 등장하고 있다. 『行者受持』에 이르러 십악화청이 참회법으로 추가되었다.[48] 논자는 이 책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현행 천수경의 참회법은 12존불 칭명의 ‘가지참’, 십악화청 풍송의 ‘사참’, 참회 2수 독송의 ‘이참’으로, 모든 참회의식이 집합되었다고 판단한다.

도량의 결계와 엄정이 끝나면 당해 의식상의 불보살을 봉청하는 거불을 봉행하거나 작법의식인 정삼업진언 건단진언 개단진언 정법계진언을 염송한 후 거불로 들어가고 있다.[49]

### 3. 참회서원 의궤

업장을 참회하지 않고는 어떤 발원도 이룰 수 없다. 불자의 원에는 사홍서원, 여래십대발원문과 같은 총원이 있고 각각의 불보살이 세운 서원처럼 각자가 다짐하는 별원이 있다. 이와 같은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계를 받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수륙재회[50]의 업장을 참회

47) 『오대진언』(1485)에는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계청’이라고 하였지만 『삼문직지』(1769)에는 계청이 없고 『천수해설』(1922)에는 ‘혹은 무애대비심대다라니게청’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계청’은 말씀해주시기를 청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48) 정각, 앞의 책, 125면. 공관표 인용.

49) 긍선, 앞의 책, 376하.

50) 竹庵編,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韓儀叢』2), 244면.

하여 업애고(懺除業障), 사홍서원을 발원하고(發弘誓願), 그릇된 길을 벗어나 바른 길을 가겠다고(捨邪歸正) 서원하는 의식에 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천수경에는 참회게·진언 준제지송편람 이후 십대원과 사홍서원을 발원하는 참회 발원편이 변형돼 남아 있다.

엄정도량 의궤 편에서의 참회와 참회발원의 참회가 다를 수는 없다. 또 천수주를 청하기 위한 10원 6향의 발원과는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 의례형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륙재회의 참제업장 발홍서원 사사귀정 편이 생략(사사귀정의 수계의)[51]과 확장(여래십대발원문과 자성중생서원도 등의 자성사홍서원의 추가)을 동시에 겪는다.

한편 이곳에 등장하는 여래십대발원문이나 사홍서원은 발원이면서 축원적이고 회향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관음예문예」의 참회법은 참회게로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가 채택되고 있고, 참회진언 이후 관음정근 회향발원이 '원멸사생육도 법계유정 다겁생래제업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 예문의 열한 번째 예불 뒤에는 참회게 후 십악화청 참회를 한 후 참회진언을 염송한 후 회향발원을 하고 있는데,[52] 앞에서 거론한 십악화청이 천수경에 삽입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인다.

참회게·진언과 발원 사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에서 전혀 이질적인 준제행법이 삽입되어 참회 서원의 모습

51) 수계의식이 별도로 성립돼 있고 이후에 봉행되므로 천수에서는 수계의식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現行法會禮懺儀式』(『韓佛全』9, 202면)은 12불의 가지참제업장 이후 참회게 염송 후 '백겁적집죄~'의 게송을 염송하며 연비하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권공 다음에 '受八關齋戒'를 시설하고 있는데, 수재를 하려면 팔관재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현 조계종 『통일법요집』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 계상을 먼저 밝히고 참회게와 진언을 하며 연비를 하고 수계와 수계약속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법요집』(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03), 711면.

52) 安震湖, 『釋門儀範』상권(前卍商會, 초판 1935), 49면.

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불가일용작법」(1869)의 ‘준제지송편람’에서 준제발원 이후 ‘여래십대발원과 사홍서원 발원이귀명례삼보’가 합편된 이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석문의범』(1935) 이전의 「천수해설」(1922)에는 준제발원 이후의 여래십대발원문과 사홍서원이 들어 있지 않고 보궐진언 뒤에 십악참회를 편제하고 있다.

준제지송편람의 편입으로 인해 참회 발원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천수경의 참회서원 의궤는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4. 준제행법 의궤

천수경에 편입된 가장 이질적인 요소의 하나로 준제행법을 꼽을 수 있다. 준제행법은 미래 박복하고 악업을 짓는 중생들을 위해 설한[53] 불공 역 「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에 근거하여 준제주를 염송하는 수행법이다. 이 경전은 준제진언 염송공덕을 말하고 있는데 준제주 90만편을 염송하면 무량겁 동안 지은 십악사중오역의 중죄가 다 소멸되고 나는 곳마다 일체의 불보살을 만나며 부유하고 출가를 할 수 있고; 재가보살도 주와 계행을 지녀 물러나지 않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수종의 준제행법 가운데 『일용작법』(1869)에 나타나는 ‘준제지송편람’은 요의 도진(1056-1120?)의 『顯密圓通成佛心要集』에 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일 예경문, 이 공양문, 삼 참회문, 사 발원문, 오 지송문을 시설하고 있는데 발원에는 사홍서원을 제시하고 있고 이후에 무진삼보에 각 제망무진신이 있고 그 일일의 몸에 제망무진의 진언과 교법과 불명호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진언 교법의 제망무진신을 이 한 문에서 다 관상함에 미래세가 다하도록 쉼없고 지침없이 관상한 후에 지송하며 깊고 미묘하다고 설하고 있다.[54]

---

53) 不空 譯, 『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大正藏』20, 178c).

이 책은 밀교심요자를 위한 작관법으로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대명진언 불모심대준제다라니진언 '부림'의 대륜일자주를, 그리고 용수보살이 게송으로 찬탄했다는 준제찬의 차례를 제시하고 있다.[55] 이는 밀교의 종자관법으로 보이는데 한국불교 의례의 신중점안에도 준제주가 사용되고 있다.[56]

天溪 受登의 『준제삼매행법』은 천태의 『법화삼매참의』를 개편한 것으로 보이는데, 持呪를 知禮가 『천수안대비심주행법』에서 천수주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준제 삼매 관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57] 弘贊在犙의 『지송준제진언법요』도 '정법계진언 일자호신진언 수주진언 준제진언'의 행법을 제시하면서 '대륜일자주'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58]

『삼문직지』에 보이는 '준뎨대명다라니'는 준제주와 용수보살의 찬탄게와 공능만을 제시하고[59] 있으므로 천수경에 보이는 준제행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불가일용작법」에서 小禮懺 이후에 '준제지송편람'이 편입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준제행법이 어떻게 하여 저녁 예불 이후에 편입되었을까. 준제주의 공능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진언은 출가·재가와 妻子·食肉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이후 공양을 위한 진언변공의 관력을 증진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긍선은 법사가 관력이 없이 비록 종일토록 진언을 외울지라도 헛수고라고 질책하고 있다.[60] 경허 스님은 법문곡 말미에 일체 액란을 소멸하고 정각을 이뤄

54) 道辰殳集, 『顯密圓通成佛心要集』(『大正藏』46, 993a).
55) 道辰殳集, 앞의 책, 994a-995a.
56) 『통일법요집』, 426-427면.
57) 天溪受登, 『准提三昧行法』(『卍續藏經』74, 551b).
58) 弘贊在犙, 『持誦準提眞言法要』(『卍續藏經』59, 249b).
59) 捌關撰, 『三門直指』(『韓佛全』10), 153면.
60) 亘璇, 『作法龜鑑』(『韓儀叢』2, 389a).

중생을 건지기 위해 준제진언을 풍송하는 행법을 싣고 있다.[61]

또 허일범이 천수경의 구조를 분석하며 준제행법을 ‘修法壇’으로 분류하는 것은 밀교수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62]

### 5. 전후 연결 의궤

천수경 연구자의 과문이나 근래 간행되고 있는 천수경이 실린 의례집은 한결같이 천수경의 마지막을, 정각은 ‘발원이귀명례삼보’[63], 김호성은 ‘총귀의’, 허일범은 ‘회향단’, 심상현은 ‘준제의식의 발원귀의’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으로 약함)의 제목이 ‘발원이귀명례삼보’인가. 또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은 ‘발원이귀명례삼보’의 하위 본문인가. 『석문의범』(1935)이나 『조석지송』(1932) 이후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은 천수송주의 회향편에 소속되고 있으며, 『석문의범』 이래 ‘발원이귀명례삼보’는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의 제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석문의범』은 준제지송편람의 준제회향발원 뒤에 여래십대발원문과 사홍서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천수해설』(1922)은 보궐진언으로 마치고

---

61) 鏡虛, 『漢岩禪師 肉筆本 鏡虛集 影印本』(월정사, 2009), 171-172면.

62) 이 점에 대해 김호성은 ‘독송용 천수경’의 출발이 가범달마 역본의 ‘원본 천수경’에서 제시하는 다라니의 독송을 위한 의궤라는 점에서 반드시 ‘원본 천수경’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김호성, 앞의 책, 72면) 하지만 천수경을 다라니 독송을 위한 경전이라고 한정하지 않는다면 허일범의 견해도 의미 있는 과문이라고 생각한다. 천수경이 다라니 독송을 위한 의궤라는 김호성의 주장은 이 글 ‘발원성취의궤’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계와 참회, 정근 등은 이미 다른 의식을 봉행하기 위한 사전의식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3) 정각, 앞의 책, 128면; 『통일법요집』, 114면 등 거개의 의례집들은 석문의범 이래 이와 같이 이해하고 채택하고 있다.

뒤에 십악화청을 해설하고 있다. 또 『소재길상 불경보감』(1965)은 『천수해설』처럼 보궐진언 끝에 '千手經(終)'이란 경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64]

이제 이 장의 핵심인 '발원이귀명례삼보'와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의 의미를 밝혀 보기로 한다. '發願而歸命禮三寶'는 '발원을 마치고 삼보께 귀명의 절을 한다.'는 번역문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가영 게송 '故我一心歸命頂禮'와 같은 作禮[65]의 지문 겸 대사이라고 할 수 있다.

『천수안대비심주행법』이나 『준제삼매행법』에는 '(참회)발원이귀명례삼보' 뒤에 '起禮一拜'[66]라는 '일어나 한 번 절한다'는 협주가 있었지만 후대로 올수록 '禮三寶'는 당연히 절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필사본이나 목판본에 협주가 사라진다. 번거롭기 때문일 것이다. '발원이귀명례삼보'는 발원을 마치고 하는 일배의 대사문의 예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의 제목으로 인식하고 격상되었을까.

『일용작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발원이귀명례삼보' 바로 아래 개행을 하지 않고 '○念佛節次'라는 소제목을 달고 나서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으로 나아가고 있다.[67] 『釋門儀範』에 이르러서는 다른 의궤의 제목이 인자되지 않게 되고 연이어 독송하면서 앞의 의궤에 편입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여기는 '歸命禮三寶'와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에서 '나무'의 번역이 한몫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월운은 '삼보께 목숨 바쳐 의지하옵나이다'[68]라 하였고, 권상로는 '십방에 항상 주하시는 부

64) 김혁제, 앞의 책, 8면.

65) 志磐撰, 『法界聖凡水陸勝會齋儀軌』(『卍續藏經』74, 794a), "(大衆和云) 故我一心歸命頂禮. (法師施主同時作禮)",

66) 知禮集, 『千手眼大悲心咒行法』(『大正藏』46, 977a); 受登, 『准提三昧行法』(『卍續藏經』74, 553a).

67) 『日用作法』(『韓儀叢』3), 532下. 이 '念佛節次'는 이 책의 아홉 번째 목록으로 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목판본이나 필사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판면을 줄여야 하는 경제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68) 월운, 『삼화행도집』(서울: 보련각, 1986), 48면.

처님께 귀의합니다'[69]라 하였다. 월운은 '禮'를 '의지하다'로, 권상로는 '나무'를 '귀의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의지하다'와 '귀의하다'는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절하다'의 의미를 '귀의하다'로 이해하고 '나무'를 '귀의하다'로 번역해 놓고 보면 '삼보께 의지(귀의)합니다'가 바로 아래(다음) '불법승께 의지합니다'의 제목으로 무리 없이 오인하게 된다.

논자는 의례문에서 어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나무'와 '귀의'와 '(보)예'의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인가. '나무'는 가피를 구할 때 쓰이고; '귀의'는 수계와 같은 서원을 할 때; '(보)예'는 인사를 할 때로 변별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나무(귀명)'와 '귀의'를 '의지하다, 귀의하다'로 유사하게 번역하면 원문에서 구별하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70]

그럼에도 불구하도 다음 의궤의 '입재 거불'[71]을 발원문의 회향 예문(발원이귀명례삼보)의 하위 본문으로 이해하고, 발원 후 예배문을 다음 의궤의 소제목으로 이해하여 연결하는 등 천수경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 것 자체가 천수경의 성격이 다른 의궤를 위한 사전 의궤적임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

69) 권상로, 『조석지송』(『韓儀叢』4), 85면.

70)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는 천수경 등 의례문에 무수히 등장하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쯤에서 그치고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71) 당해 의례 주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처님을 칭명하는 '거불'은 의궤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귀명 귀의 예경 등의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나무상주시방불'을 거불로 쓰는 의례를 보면 위의 '장엄염불'뿐만 아니고, 구병시식 종사열반, 다비편의 시식문, 태세청, 상주가 빠진 '나무시방불'은 풍백우사청 가람청 등 민속 습합적 의례의 입재 거불에 쓰이고 있다.

## Ⅵ. 결 어

지금까지 논자는 의례 속에 보이는 천수주의 역할과 천수경의 성립을 개관하며 분과와 천수경의 심층구조를 찾아보았다. 천수경은 '독송용 천수경', '현행 천수경', '의식용 천수경'이라는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뛰어난 공능을 가진 천수주답게 천수주를 중심으로 유사한 의궤를 흡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천수주는 기도 발원성취 의궤로서 그 역할을 완수하고 있지만 뛰어난 공능으로 말미암아 유사 의궤의 역할을 모아 함께 독송하게 되면서 발원성취의궤에 그치지 않고, 엄정도량의궤, 참회서원의궤, 준제지송의궤 등이 수용된 천수경으로 확립되었다.

개인적 발원의궤에서 불사성취의궤로 초기에는 발원성취, 삼매를 닦기 위한 사전 의궤로서 주로 개인적 원성취를 위해 염송되었다면 후대로 올수록 천수주는 작단의 결계의궤 수계 서원을 위한 참회의궤, 지옥을 파하는 다라니 등 대회(재회)에 사용되면서 의미가 확장되고 체계화되었다.

19세기 이래 염불작법을 위한 저녁 송주로 자리하여, 뛰어난 친연성을 가지게 되었고, 후반부 저녁 송주인 준제행법을 흡수하여 현행 천수경의 모습과 가까워졌다. 이후 20세기 중후반 참제업장이라는 가지참회, 십악화청이라는 사참, 죄의 자성이 본래 없다는 頓修적이고 禪的인 참회게 두 首가 이참으로 천수경의 참회의식에 편입되어 참회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서 참회발원의 종교적 무게가 더해졌다. 그렇다고 참회의식이 발원과는 다를 수 없으므로 참회는 발원과 하나의 의미체계로 확장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천수주를 중심으로 하는 발원에 참회의식이 천수경의 전반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반부의 준제주는 관법으로 준제행법 자체의 완결성이 뛰어난 의식이다. '옴 자례 주례 준제 스바하'의 구자를 관하는 관법은 삼문직지에

도 보이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현행 ‘준제행법’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불가일용작법」에 와서이다. 그렇다면 왜 이질적인 천수주와 합편되어 천수경의 후반부를 이루게 되었을까.

천수주를 염송하는 이유가 참회발원 도량엄정 등의 의식작법을 행하는 장소나 작법자들의 청정을 위해서이듯이 준제주 또한 그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조금 거론하였지만 봉청 이후 공양(시식)의식이 진행되는데 이때 변식을 하는 법사는 관력이 필수적이다. 하여 관력을 증장하기 위해 준제지송편람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현실적 의궤의 문제**

사방찬과 도량찬은 결계 엄정의 작법의식이 천수경에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반법회에서 천수경을 독송할 때 쇄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마음으로 쇄수를 하였다고 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사실 이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많은 것이 좋다고 해서 사방찬 도량찬 참회의식을 염송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발원후 귀명의 절을 하는 지문 겸 대사인 ‘발원이귀명례삼보’는 절을 해야 하고, ‘나무상주시방불 · 법 · 승’의 역할과 의미를 회복하여 修觀이나 경전 독송과 같은 다음 의궤의 거불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사전 염송 의궤**

위에서 보았듯이 천수경은 발원과 참회의식의 전반부와 관력을 증진하기 위한 준제지송의식의 후반부의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전 독송과 불사작단 등을 위한 보편적으로 염송하는 사전 의궤임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천수경이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

립돼 왔다는 것 자체가 완결성을 갖기보다는 비고정적[72]이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천수주가 불교의례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듯이 천수경이 그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교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천수경 각 구의 바른 번역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의궤(修삼매 경전염송 공양의식 등)를 봉행하기 위한 사전 의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의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大正藏』: 大正新脩大藏經
『韓儀叢』: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朴世敏編, 三聖庵, 1993.
『韓佛全』: 韓國佛敎全書

佛陀耶舍共竺佛念等譯, 『四分律』, 『大正藏』22
鳩摩羅什譯. 『法華經』「見寶塔品」, 『大正藏』7
伽梵達摩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大正藏』20
不空 譯, 『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 『大正藏』20
天台, 『法華三昧懺儀』, 『大正藏』46
四明知禮, 『千手眼大悲心咒行法』, 『大正藏』46

72) 심상현, 앞의 책, 252면, 천수경을 '의식용 천수경'이라고 칭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누층적인 발달이 아닌 상주권공의 축약이라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 또 주8에서 거론하였지만 정각의 '연계의궤'는 현 『통일법요집』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천수경의 비고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道辰 夬 集,『顯密圓通成佛心要集』,『大正藏』46
志磐撰,『法界聖凡水陸勝會齋儀軌』,『卍續藏經』74
受登,『准提三昧行法』,『卍續藏經』74
弘贊在犙,『持誦準提眞言法要』,『卍續藏經』59
傅大士頌,『梁朝傅大士頌金剛經』,『大正藏』85

『金剛經諺解』(弘文閣 影印本), 1464年 初版.
志磐撰,「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韓儀叢』1, 1470; 1573.
學助,『五大眞言』,『韓儀叢』1, 1485.
　　,「眞言勸供」,『韓儀叢』1, 1496.
釋王寺,「勸供諸般文」,『韓儀叢』1, 1574.
龍泉寺,『念佛作法』,『韓儀叢』2, 1575.
龍腹寺,「靈山大會作法節次」,『韓儀叢』2, 1634.
西河編,「仔夔刪補文」,『韓儀叢』2, 1664.
竹庵編,「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韓儀叢』2, 1661
金山寺 「諸般文」,『韓儀叢』2, 1694.
明衍集,「念佛普勸文」,『韓佛全』9, 1764.
捌關撰,「三門直旨」,『韓佛全』10, 1769.
明眼集,「現行法會禮懺儀式」,『韓佛全』9, 1709.
亘璇撰,「作法龜鑑」,『韓儀叢』3, 1826.
海印寺 兜率庵,「佛家日用作法」,『韓儀叢』3, 1869.

上海佛學書局,『禪門日頌』, 刊記 未詳, 1-444면.
금허, 필사본『천수해설』, 경성, 안양암, 1922, 1-37면.
권상로,『조석지송』(『韓佛全』1), 안양암, 1931, 69-86면.
安震湖,『釋門儀範』상권, 前卍商會, 초판 1935, 상권 1-272면; 하권 1-314면.
鏡虛,『漢岩禪師 肉筆本 鏡虛集 影印本』, 월정사, 2009, 1-172면.

金赫濟,『消災吉祥 佛經寶鑑』, 초판 1965; 3판, 서울: 明文堂, 1973, 1-207면.
광덕,『불광법회요전』, 서울: 불광출판부, 1983년 초판, 1-651면.
대한불교 조계종,『통일법요집』, 서울: 조계종출판사, 1998; 2003, 1-804면.
월운,『삼화행도집』, 서울: 보련각, 1986, 1-596면.

김호성,『천수경 이야기』, 서울: 민족사, 1993, 1-215면.
김호성,『천수경의 비밀』, 서울: 민족사, 2005, 1-237면.
김호성,『천수경과 관음신앙』,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3, 1-374면.
김호성,『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서울: 민족사, 2006, 1-351면.
法性 편저,『백화도량에로의 길』, 서울: 경서원, 1982, 1-140면.
심상현,『불교의식각론』Ⅴ, 서울: 한국불교출판부, 2001, 1-264면.
정각,『천수경연구』재판, 서울: 운주사, 1997, 1-395면.

이성운,「蒙山德異의 "禪敎施食儀文"의 수용과 변형」,『'장례문화에 관한 한·일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공양에 관한 비교학회, 2008.9.5, 33-51면.
河泰完,「현행 천수경 오기에 대한 고찰」,『東國思想』vol.19, 서울: 동국대학교, 1986, 139-149면.
허일범,「한국의 진언·다라니 신앙 연구」,『회당학보』제6집, 서울: 도서출판 해인행, 2001, 53-79면.

| 논문투고일: 2009.8.16 | 심사완료일: 2009.12.15 | 게재확정일: 2009.12.16 |

〈Abstract〉

## Structure and meaning for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Lee, Sung-Woon

This paper intends to help understand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correctly by analyzing deep structure of current One Thousand Hands based on philosophy, division and formations of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performed by researchers and by clarifying prestige and meaning of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will clarify what roles of 'Thousand-armed Dhāraṇī' plays for ritual, and then overview, compare and review formational history of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and it will also review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by searching its deep structur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ituals appeared in research papers for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and a series of Korean Buddhism Ritual Documents in terms of diachronic aspect as possible.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Dhāraṇī appeared rituals was used as precedent ritual text for Samādhi and ritual text of recitation of the Buddha's name or Dhāraṇī of breaks bad karma for cleaning temple ground or removing vicious spirits, and it was advanced to an evening magic formula, and finally became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The author of this paper, based on my opinions for completeness and separated division of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extracted deep structures of ritual text of setting one's desire, ritual text for purification of adornments, ritual text of repentance and vow , conditioned Cundī dhāraṇī practice and ritual text of connecting with after and before.

After that,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has been extended from ritual text of personal desire to ritual text for Buddhist service achievements. During that processes, Unrealistic chants such as Praises to the Four Directions(四方讚) and

Praises to the Bodhi-mandala(道場讚) were incorporated, and preface of next ritual text was believed to be recognized as an epilogue of previous ritual text during connection process.

This paper will be enough to verify that 'current'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has double structures of setting for one's desires and preface of repentant rituals, and conclusional parts of conditioned things Cundī Dhāraṇī practice, and it is pre-rites for conventional prays for scripture reading and Buddhism services. The fact itself that with what meaning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has been formed is believed to be unfixed rather than to have its completeness. Therefore, as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Dhāraṇī has been used for Buddhism ritual,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should provide religious backgrounds so that it can be utilized meeting each situation. When those are achieved, it will be possible to interpret each paragraph of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which will not only carry out pre-rite for other rites but also help to understand and establish overall Buddhism rituals.

Key words: Thousand-armed Avalokiteśvara sūtra, Setting one's desire, Samādhi, Purification of adornment, Conditioned Cundī Dhāraṇī practice, Repentance, Buddhism ritual